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은 기 수**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자살이 사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중요 사인에서 자살의 순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자살률의 특징의 하나는 고령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 사망순위에서 자살의 순위는 높지 않지만 고령 자살률의 증가 폭은 다른 연령대의 자살률보다 월등히 높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살을 기술적인 수준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자살의 경향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최근 자살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자살의 급증이 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분배, 가계부실지수 등의 경제지표와 전체자살률, 고령 자살률, 각 연령 자살률과의 관계를 1990년부터 1997년까지, 1998년부터 2004년까지로 시기를 나누어 상관관계 계수를 구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997년까지는 자살률과 경제지표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자살률과 소득분배 지표 사이에 확실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령별 자살률로 나누어보면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과 소득분배 지표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최근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급증하는 자살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은 자살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분배 악화 현상인 경제적 양극화가 자살률의 급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단어: 경제적 양극화, 자살, 상관관계, 경제위기

*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한 <네트워크사회의 사회해체> 연구의 일부분이다. 이 연구에 필요한 자살에 관한 자료를 통계청 김동희 과장 및 김부연씨가 제공해주셨다. 일본의 자료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히로시 고지마 박사께서 제공해 주셨다. 가계부실지수는 대신경제연구소의 민병수 연구위원이 제공해 주셨다. 지니계수는 안동대 경제학과의 임병인교수께서 제공해 주셨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권희영, 국수형 두 대학원생과 서울대 사회학과 남자영 양은 이 연구의 조교로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데 수고하였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 서울대 국제대학원

I. 문제제기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계속 높아져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통계청, 2005). 발표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제1위라고 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일한 시점의 자살률을 세계 모든 나라에 걸쳐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그야말로 세계 제1위 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것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고령인구의 자살률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이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고령화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령인구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한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고령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고령인구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미래 한국사회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지 모른다는 염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은 그 자체가 오랜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었다.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매우 사회적인 현상으로 규정되고 연구되어 왔다. 단순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현실을 담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살은 인식되어 왔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자살률이 증가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고령인구의 자살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자살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면 왜 한국사회에서 자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왜 고령인구의 자살률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살을 인식한다면 한국사회가 어떤 변동을 겪고 있고, 어떤 현실 속에서 자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급증하고 있는 자살은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까.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자살에 관해 수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충분히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먼

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살에 관한 선행연구도 충분하지 않으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높은 자살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현재 급증하고 있는 자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엄밀한 연구논문은 아니지만 올해 발간된 한 연구보고서는 한국사회의 급증하고 있는 자살을 최근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송태정과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분석에 의하면(송태정, 배민근, 김기범, 2005),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자살, 이혼, 범죄 등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어려워진 경제가 자살률의 증가를 낳았다고 경제상황과 자살, 이혼 및 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상황과 자살, 이혼, 범죄 사이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송태정 등이 분석한 연구결과는 현재 한국사회의 변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첫째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극복된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경제적인 요인이 사회의 변동 및 개인의 행위, 가치, 태도의 변화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수년 전에 발표된 한 연구는 지금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률이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Eun, 2003). 지난 1960년대 초반 이후 한국사회에서 출산력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오늘날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낮아지고, 특히 최근에는 1.1~1.2 수준에 머물 정도로 출산력 수준이 급감한 것은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경제적 요인이 단기기간의 출산력 변동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송태정 등의 분석결과는 출산력뿐만 아니라 자살, 이혼, 범죄 등의 증가도 한국사회가 경험한 경제위기 및 그 이후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상황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산력의 급감이나(Eun, 2003) 자살, 이혼, 범죄의 증가(송태정 등, 2005)를 외환위기 이후 경제상황의 변화에 연결시켜 설명한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변화된 경제상황 가운데 어떤 점이 출산력의 급감이나 자살, 이혼, 혹은 범죄의 증가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출산력을 설명할 때는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가 경제상황의 변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송태정 등의 최근 연구에서는 실업률, 경제성장률, 가계부실, 소득분배 등 경기침체, 양극화 등의 요인뿐만 아니라 고령화, 경제성장의 하락 추세 등 모든 경제적 상황이 자살, 이혼, 범죄 등의 증가에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회적 현상의 변화를 경제적 상황에 전가하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이혼의 증가, 자살의 증가, 범죄의 증가 등이 경제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모든 경제적 상황이 모든 사회적 현상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여러 경제적 요인 가운데 저출산, 자살, 이혼, 범죄 등에 선택적으로 더 연관된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지 모르는데 모든 사회적 현상의 변화가 모든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자살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자살률의 추세를 가능한 한 상세히 기술적인 수준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한국의 자살률의 추세를 비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능한 일본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자살률을 비교하면서 기술적인 수준에서 분석한다. 둘째, 자살률의 증가가 경제적인 상황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미 송태정 등(2005)의 분석이 있지만, 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경제적인 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자살률의 증가, 그리고 특히 고령인구의 자살률의 증가와 연관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II. 기존연구의 검토

자살은 사회적 현상으로 오랜 기간동안 여러 각도에서 연구되어 왔다. 사회학적으로 가장 대표적이면서 고전적인 연구는 뒤르켐의 자살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뒤르켐, 1994). 뒤르켐은 철저하게 자살을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한 사회에서 자살의 증가가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통합에 관심을 가졌던 뒤르켐은 자살은 지극히 사회적 현상으로 한 사회가 무규범(amoral) 상태에 처하게 될 때 증가한다고 보았다. 뒤르켐의 자살의 연구에 뒤

이러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자살은 수많은 후속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

한국에서 자살에 관한 연구도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박중순, 이준영, 김순덕(2003)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 회귀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자살률이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과 밀접히 관련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자살률과의 관계를 본 것인데, 시계열적 회귀분석을 통해 자살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박중순, 김순덕, 지선미, 이제숙(2003)은 자살률의 추세를 성, 연령, 계절 등 다양한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김승용(2004)은 특히 노인자살률에 주목하여 이혼율, 실업률, 경제성장률,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등과 자살률과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 그는 이 연구의 결론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던 시기에 노인 자살률이 증가했고, 실업률이 증가할 때 반드시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지 않아 실업의 시기와 노인 자살률 사이에는 일관된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노인 자살률은 관계가 있고, 노인의 경제활동이 줄어들 때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본 연구와도 관련하여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혼률을 자살률과 연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실업률은 노인 자살률과 연관이 없는데, 경제성장률과 노인 자살률과는 관계가 있다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설명이 없다. 김형수(2000)도 노인과 자살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주로 사회복지적인 관심에서 노인자살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노인 자살을 다루고 있다.

인구학적 관점에서는 박경애(1996)의 연구가 있다. 박경애는 성과 자살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자살을 연령별 자살률 및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나누어 구하고 있다. 또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별 등 자살에 여러 변수를 적용하여 자살률의 변화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론적 논의와 분석결과를 연관시켜 한국의 성과 자살의 관계를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자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리에게 사회학의 고전이론 및 새로운 이론적 정립으로 잘 알려진 기든스는 학문 초기에 프랑스 사회학에서 자살에 관한 연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다루었다(Giddens, 1965). 이 연구는 자살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아니다. 그러나 자살을 다룬 사회학적 이론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뒤르켐 이전에 프랑스 사회학에서는 어떻게 자살을 다루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자살을 연구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험적인 연구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살과 종교와의 관계에 관

한 논문은 뒤르켐의 논지를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반박하기 위해 많이 연구되어 온 대표적인 연구 분야의 하나이다(Simpson and Conklin, 1989). 자살은 혼인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살확률이 높다는데 주목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Norstrom, 1995; Stack, 1992; Stack and Wasserman, 1993; Trovato, 1987). 자살이 일종의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다뤄지면서 술 소비와 자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Norstrom, 1995; Stack and Wasserman, 1993). 또한 경제발전예 따른 불안감의 증대 그리고 이를 종교와의 연관성 등에서 자살에 관해 경험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도 이루어졌다(Quinney, 1965; Simpson and Conklin, 1989).

자살에 관해 아주 단순한 사실의 하나는 성별로 보면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의 자살률보다 높은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왜 여성의 자살보다 남성의 자살이 높은지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세계 여러 나라의 자료를 이용해 이루어졌다. 펨펠(Pampel)은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의 성 평등성의 증가로 인한 “보호의 감소” 및 전통적인 가족구조 및 가족규범 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데 그러한 이익이 근대가족으로 넘어오면서 감소하는데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감소”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세계 여러 나라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지라드(Girard)는 자살의 성과 연령별 차이에 주목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자살의 차이를 성 및 연령별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역할정체성, 경제발전정도 및 친족구조 등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중년의 남성과 여성에게 자살률이 높은 반면, 개발도상국은 이런 자살유형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자살에 관한 기존연구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송태정 등(2005)의 연구이다. 송태정 등은 자살만을 따로 다루지는 않았다. 이들은 자살, 이혼, 범죄의 증가를 함께 다루고 있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이들은 자살, 이혼, 범죄의 증가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진한 경제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살, 이혼, 범죄 등의 장기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한국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단기간의 급속한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분석은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단기적인 급속한 변화가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몇 가지 결함이 노출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자료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집합적인 수준의 다양한 지표들이다. 대표적인 결함의 하나는 자살, 이혼, 범죄의 증가가 경제적인 지표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줄 때 자살 증가율, 이혼 증가율, 범죄 증가율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즉, 자살률, 이혼율, 범죄율 등 자살, 이혼, 범죄 등의 기본 지표보다는 자살 건수 등 두 해 사이의 자살, 이혼, 범죄 등의 증가율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자살 증가율도 자살이 왜 늘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지표의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자살, 이혼,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집단의 크기가 해마다 변하고, 이는 자살, 이혼,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지표는 아니다. 5세 이상 인구 십만 명 당 자살자의 수로 정의되는 자살률이나 인구 1000명당 이혼의 수로 정의되는 이혼율 등이 더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송태정 등의 연구에서는 후자를 채택하지 않고, 전자를 사용하여 경제가 자살, 이혼, 범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가계부실지수와 자살, 이혼, 범죄와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할 때도 가계부실지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가계부실지수의 증가율을 대신 사용하고 있다. 가계부실지수를 직접 사용해도 가계부실지수의 증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살의 추세와 상관관계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자살의 증가율 등을 지표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계부실지수도 가계부실지수의 증가율을 구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상관관계 계수를 제시할 때는 통계적인 유의도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상관관계 계수만 제시하면서 상관관계 계수가 높다거나 어떤 순으로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가 나타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모든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

Ⅲ. 자살률의 추세

이 절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자살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기술적인 수준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1>은 1983년부터 2004년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사망률과 자살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로 표현되는 사망률은 1983년에 574명이었다. 이런 사망률은 1990년에 549명으로, 1993년

에는 516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다시 증가하여 1994년에는 사망률이 530이 되었다. 그러나 사망률의 감소추세는 계속 이어져 2004년에는 507명이 죽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해마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사망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사망률은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자살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1983년에는 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9.5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1985년에 11.5명이 자살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1992년까지 다시 9명대의 자살률로 돌아갔었다. 그러나 1993년에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0.6명으로 증가한 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7년에는 14.1명으로 증가한 자살률이 1997년 경제위기를 겪은 후인 1998년에는 19.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다 다시 16.1명(1999년), 14.6명(2000년), 15.5명(2001년) 등으로 자살률이 낮아졌다. 그러나 2002년에 자살률이 19.1명으로 다시 크게 높아지고 2003년에는 24명, 2004년에는 25.2명으로 자살률이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의 자살률의 차이를 구해보면 무려 1000명당 10.6명의 차이를 나타낼 정도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표 1〉 사망률과 자살률의 변화: 1983-2004

연도	사망률	자살률
1983	574.4	9.5
1984	562.8	9.6
1985	568.0	11.5
1986	562.8	11.2
1987	566.1	10.5
1988	545.6	9.2
1989	542.3	9.4
1990	549.1	9.8
1991	547.7	9.1
1992	529.2	9.7
1993	516.1	10.6
1994	530.2	10.5
1995	526.3	11.8
1996	516.1	14.1
1997	518.3	14.1
1998	517.4	19.9
1999	522.7	16.1
2000	520.4	14.6
2001	507.0	15.5
2002	512.2	19.1
2003	508.8	24.0
2004	506.9	25.2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사망원인통계〉

우리나라의 자살률의 추세를 사망률의 추세와 비교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의 자료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 10여년 사이에 확연히 증가세로 돌아섰고,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자살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들어 자살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일본의 자살률의 추세와 비교해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다음 <표 2>는 한국과 일본의 자살률의 추세를 가능한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표 1>에서 일본은 10년 간격으로 자료가 주로 제시되어 있고 1999년부터는 매년 자살 통계가 가능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자살률이 제시되어 있다. 엄밀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최근의 자살률의 추세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표 2> 한국과 일본의 자살률의 변화

연도	한국	일본
1935		20.5
1950		19.6
1960		21.6
1970		15.3
1980		17.7
1990	9.1	16.4
1991	9.1	
1992	9.7	
1993	10.6	
1994	10.5	
1995	11.8	
1996	14.1	
1997	14.1	
1998	19.9	
1999	16.1	25.0
2000	14.6	24.1
2001	15.5	23.3
2002	19.1	23.8
2003	24.0	25.5
2004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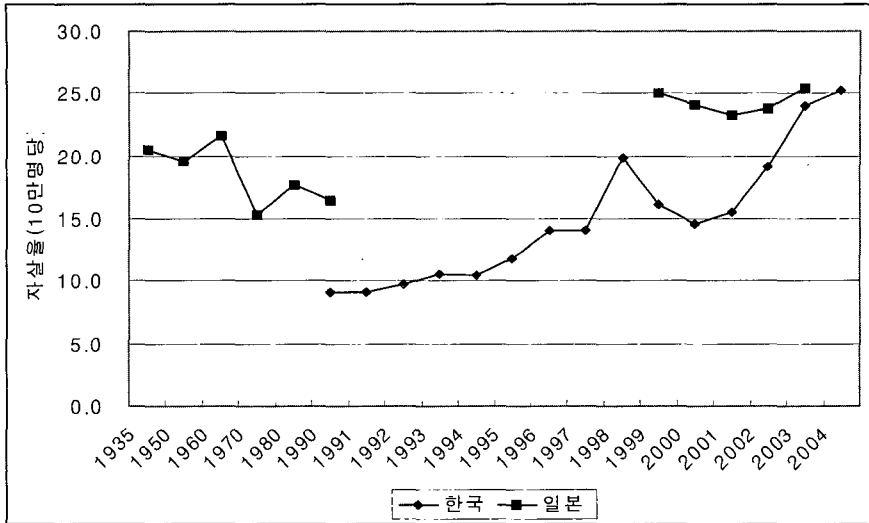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 통계청, 해당년도 <사망원인통계>; 일본은 <인구통계자료집> 2001/2002, 2003, 2004, 2005.

일본의 경우 1935년부터 1990년까지, 위에 제시된 표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자살률은 최저 15.3명(1970년)에서 최고 21.6명(1960년)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자살률이 비교 가능한 첫 연도인 1990년을 보면 한국의 자살률이 9.1명인데 반해 일본의 자살률은 16.4명으로 15년 전인 1990년 현재 일본의 자살률이 한국보다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 한국의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한다. 특히 1998년에는 자살률이 거의 20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그러다 1999년에는 1998년보다는 낮은 16명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1990년에 16.4명의 자살률을 기록했었는데, 1999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25명이 자살하는 수준으로 자살률이 크게 상승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에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부터 1999년 사이에 자살률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통과하면서 자살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2002년을 통과하면서는 자살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99년에 인구 10만 명당 25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수준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23.8명 수준으로 약간 낮아졌다가 다시 2003년에는 25.5명이 자살하는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2004년에 한국의 자살률이 25.2명을 기록해 한국의 자살률이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2004년의 자살률을 알 수 없지만, 2003년에 이미 일본의 자살률은 25.5명을 기록하면서 2004년 한국의 자살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의 일본의 자살률을 현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한국과 일본은 현재 비슷한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의 수준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한국의 자살률이 최근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이른 점이다. <표 2>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의 자살률은 자살에 관한 체계적인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35년부터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표 1>을 통해 1983년부터 가능한 자살 통계를 보아도 한국의 자살률은 일본보다 훨씬 낮았었다. 그러다 지난 10년 사이에, 좀더 엄밀히 말하면 1997년 경제위기를 통과하면서 한국의 자살률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불과 7-8년 사이에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다음 <그림 1>을 통해 다시 한번 쉽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자살률의 변화

이처럼 자살률이 최근 들어 급증하였지만 자살률이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급증했다고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10대의 자살률이나 40대의 자살률 혹은 70대의 자살률이 동일하게 급증하였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자살률의 증가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 3>은 한국의 자살률의 추세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 자살률을 나누어 살펴보면, 사망률이 높은 고령연령층에서 자살률도 높은 편이다.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1996년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1996년에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의 자살률은 최소 10.3명(15-19세)부터 최고 19.2명(50-54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60-64세 연령층의 자살률은 20.5명으로 20명대로 올라섰고, 70-74세의 자살률은 30.3명, 75-79세의 자살률은 40.3명, 85세 이상 고령층의 자살률은 44.4명 등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살률이 계속 높아졌다. 연령별 자살률로 본다면 60세 이상의 고령연령층의 자살률이 그 이하 연령층의 자살률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연령별 자살률의 유형은 변함이 없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다음 해인 1998년의 연령별 자살률을 살펴보자. 1998년에 6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자살률은 1997년의 자살률보다 급격히 높아져 29.3명(45-49세), 30.1명(50-54세), 30.8명(55세-59세) 등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표 3> 연령별 자살률의 변화: 1993-2004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93	1.0	7.6	10.5	11.1	10.9	12.8	13.4	12.9
1994	1.4	6.9	10.6	11.2	12.6	12.9	10.6	14.7
1995	1.5	7.4	11.4	13.1	12.1	13.1	13.5	15.9
1996	2.1	10.3	13.3	14.8	14.3	16.0	16.8	17.5
1997	1.7	7.6	13.1	14.6	15.5	16.7	15.9	20.2
1998	2.0	9.6	15.3	19.3	20.5	22.6	26.4	29.3
1999	1.7	7.7	12.6	13.6	15.5	19.2	20.0	23.3
2000	0.7	6.3	11.0	11.2	13.4	16.8	18.7	18.9
2001	0.9	5.4	9.8	12.4	14.1	16.7	17.0	20.2
2002	0.9	6.0	10.5	14.3	16.8	20.6	20.9	24.7
2003	0.9	8.2	13.5	17.0	19.7	24.1	27.1	29.5
2004	1.2	6.5	12.3	15.3	17.9	23.3	27.7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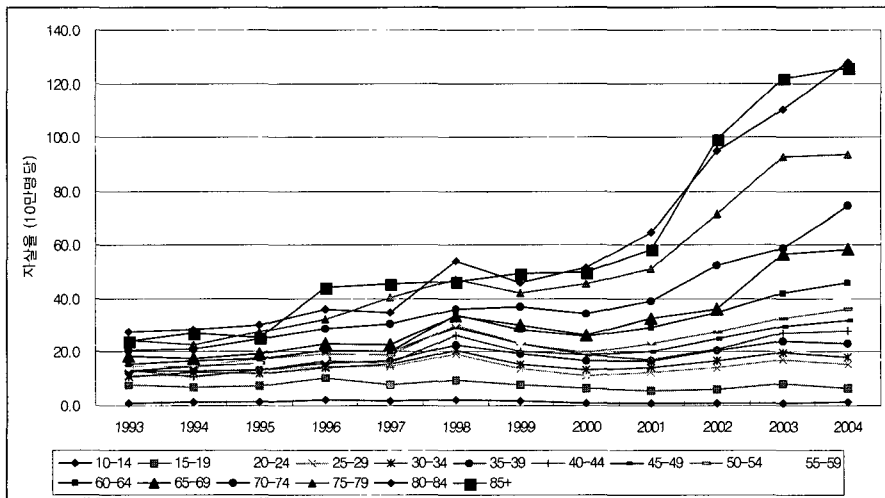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
1993	14.7	14.3	15.6	18.5	20.4	24.5	27.5	24.2
1994	14.4	15.4	16.9	17.5	21.1	22.6	28.4	27.1
1995	17.5	15.9	17.4	19.2	24.8	27.5	30.2	25.4
1996	19.2	17.7	20.5	23.1	28.8	32.2	36.2	44.4
1997	18.9	20.3	20.0	22.7	30.3	40.3	34.9	45.5
1998	30.1	30.8	34.1	33.4	36.1	47.4	53.9	46.5
1999	23.0	23.6	28.2	29.9	36.9	42.1	46.1	49.2
2000	19.9	24.8	25.7	26.0	34.5	45.7	51.7	49.8
2001	23.1	24.6	29.1	32.7	39.2	51.3	64.9	58.2
2002	27.3	29.4	34.9	36.0	52.5	71.9	94.7	99.2
2003	32.7	37.3	42.2	56.8	58.9	92.8	110.2	122.1
2004	36.2	40.3	46.0	58.4	74.6	93.5	127.8	125.8

자료: 통계청, KOSIS.

연령층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60-64세 연령층에서는 자살률이 34.1명이었고, 이 수치는 75-79세의 47.4명, 80-84세의 53.9명 등으로 60세 미만의 연령층의 자살률보다 월등히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이나 다름없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60세 이상의 연령층의 자살률이 60세 이하의 연령층의 자살률보다 높은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위기 이후 연령별 자살률의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2002년을 예로 들면 59세까지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은 55-59세 연령층에서 관찰되는 29.4명 수준의 자살률이다. 이보다 더 높은 연령층으로 옮겨가면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60-64세의 자살률은 34.9명이 되고, 70-74세의 자살률은 52.5명, 75-79세의 자살률은 71.9명, 80-84세의 자살률은 94.7명 등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자살률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날 정도로 60세를 전후로 한 자살률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고령층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2004년에 절정을 이루고 있다. 2004년의 경우 50-54세도 자살률이 36.2명, 55-59세는 40.3명으로 그 전 해에 비해 자살률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옮겨가면 60-64세의 자살률이 46명, 65-69세는 58.4명, 70-74세는 74.6명, 75-79세는 93.5명, 80-84세는 127.8명, 85-89세는 125.8명 등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고령층의 자살률이 경층 뛰고 있다.



〈그림 2〉 연령별 자살률의 변화: 1993-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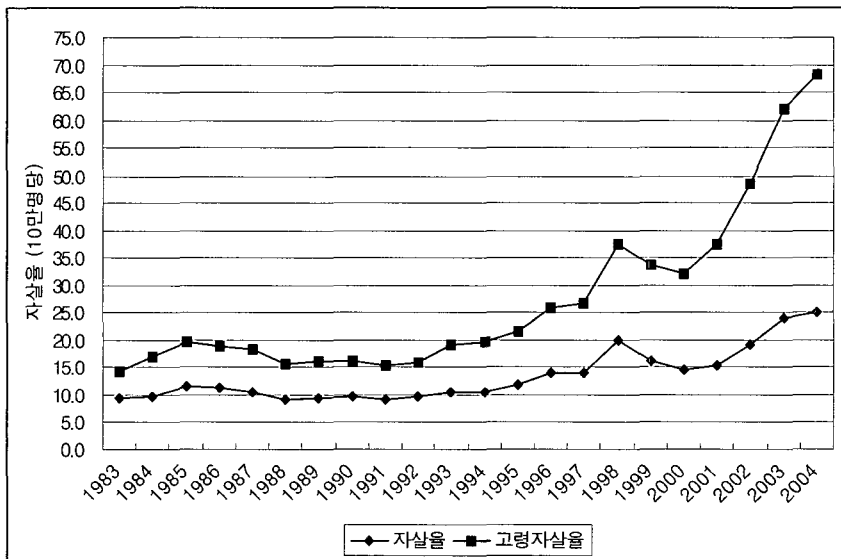
<표 3>을 통해 연령별 자살률의 추세를 이해할 수 있지만, 다음 <그림 2>를 보면 <표 3>에 나타난 연령별 자살률의 변화를 좀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1993년 이래 2004년까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증가해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자살률이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률의 변화의

추세를 보면 최근에 올수록 고령층의 자살률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인 자살률의 증가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표3>과 <그림 2>에 분명히 보이는 사실은 고령층에서 자살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표와 그림에서는 연령을 5세 간격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고령층의 자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힘들다. 아래 <그림 3>에서는 60세 이상을 모두 고령층으로 간주하고 전체 자살률의 추세와 고령층 자살률의 추세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전체 자살률의 추세와 고령층의 자살률의 추세는 비슷하다. 적어도 1992년 정도까지는 전체 자살률의 추세와 고령층의 자살률의 추세가 비슷한 차이를 유지하면서 비슷한 추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1993년부터 전체 자살률의 증가보다 고령층의 자살률이 더 높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자살률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고령층의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의 증가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전체 자살률과 고령층 자살률 사이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전체 자살률이 완만하거나 약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 고령층의 자살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전체 자살률이 빨리 걸어가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 고령층의 자살률은 뛰어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전체 자살률과 고령 자살률의 추세: 1993-2004

고령층의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60세 이하의 연령층의 자살률의 추세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록 젊은층의 자살률 자체는 고령층의 자살률에 비교해 볼 때 낮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은 젊은층에서 자살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은 높기 때문에 젊은층의 자살은 고령층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다음 <표 4>는 한국과 일본의 10대 사망 원인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 주고 있다.

<표 4> 한국과 일본의 10대 사망 원인의 변화: 1999-2004

사인 순위	한국						일본 1999-2003 ¹⁾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제 1 사인	약성 신생물	약성 신생물	약성 신생물	약성 신생물	약성 신생물	약성 신생물	약성 신생물
제 2 사인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제 3 사인	심장질환	심장질환	심장질환	심장질환	심장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제 4 사인	운수사고	운수사고	당뇨병	당뇨병	당뇨병	자살	폐렴
제 5 사인	간질환	간질환	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자살	당뇨병	불의의 사고
제 6 사인	당뇨병	당뇨병	운수사고	간질환	간질환	간질환	자살
제 7 사인	자살	만성하기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자살	운수사고	만성하기도질환	노쇠
제 8 사인	만성하기도질 환	자살	자살	운수사고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	신부전
제 9 사인	고혈압성 질환	고혈압성 질환	고혈압성 질환	고혈압성 질환	고혈압성 질환	고혈압성 질환	간질환
제10사인	폐렴	폐렴	호흡기 결핵	호흡기 결핵	추락사고	폐렴	만성폐반성 폐질환

주: 1) 일본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0대 사인의 순위가 동일하다.
 자료: 한국은 통계청 매년도 <사망원인통계>, 일본은 <인구통계자료집>
 2000, 2001/2002, 2003, 2004, 2005.

연령별로 사망원인(사인) 순위에서 자살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매해 사인 순위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일본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한국의 사인 순위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 계속 높아져왔다. 1999년에 사인 가운데 자살은 제7사인이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한 단계 낮아져 자살은 제8순위였다. 그러나 2002년에 자살은 다시 제7사인으로 한 단계 높아지고, 2003년에는 제5사인, 2004년에는 제4사인으로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최근에 자살이 전체 사인 가운데 차지하는 위치가 5순위 이내로 진입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살률이 한국보다 계속 높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인 자료를 보면 자살이 전체 사인 가운데 차지하는 위치는 변동 없이 제6순위로 나타난다. 한국은 2002년 제7순위에서 2003년 제5순위로 자살의 사인순위가 급변동했지만, 일본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변함없이 자살은 제6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사망을 하나로 묶어 분석하면 자살이 사망순위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살이 사망원인 가운데 차지하는 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령층보다도 오히려 젊은층에서 자살이 갖는 의미가 더 중대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5>는 연령별로 자살이 차지하고 있는 사인순위와 연령별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자. 연령별 사인 가운데 자살이 제1순위인 경우는 2003년 20대와 30대에서 처음 나타난다. 20대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자살은 20대 사망원인 가운데 제2순위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자살은 20대 사인의 제1순위가 되었다. 30대의 경우에는 2000년과 2001년에 자살은 제3순위의 사인이었다. 2002년에 자살이 30대 사인의 2순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2003년부터 자살은 30대의 경우에도 제1순위의 사인이 되었다. 10대에서는 자살이 2002년까지 제3순위의 사인이었고, 2003년부터는 제2순위의 사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40대부터는 자살이 사인 가운데 차지하는 순위가 낮아진다. 40대에서 자살은 2000년에 제6순위의 사인이었고 2001년에는 제5위의 사인이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40대에서도 자살은 제3순위의 매우 중요한 사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50대와 60대에서도 사인의 순위는 젊은층보다는 낮지만 중요한 사인이 되고 있다. 2003년부터 60대의 사인 가운데 자살은 제6순위의 사인이 되었다.

〈표 5〉 연령별 사망 원인 순위의 변화 단위: 순위(연령별 자살률)

	한국 ¹⁾					일본 ²⁾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	2001	2002	2003
10-14						3(1.1)	4(0.9)	5(0.6)	3(1.1)
15-19	3(3.8)	3(3.3)	3(3.5)	2(4.5)	2(3.7)	2(6.4)	2(6.8)	2(5.8)	2(7.3)
20-24						2(16.0)	2(14.8)	1(15.1)	1(15.8)
25-29	2(11.1)	2(11.2)	2(12.5)	1(15.2)	1(13.8)	1(18.1)	1(17.9)	1(17.3)	1(21.0)
30-34						1(20.2)	1(18.6)	1(19.9)	1(22.9)
35-39	3(15.1)	3(15.4)	2(18.6)	1(21.8)	1(20.6)	2(21.5)	2(21.5)	1(21.8)	1(25.1)
40-44						2(23.7)	2(25.1)	2(26.2)	2(30.4)
45-49	6(18.8)	5(18.4)	3(22.5)	3(28.2)	3(29.5)	2(30.7)	2(29.0)	2(30.8)	2(34.6)
50-54						2(37.9)	3(36.6)	3(39.2)	3(40.6)
55-59	7(22.2)	7(23.8)	7(28.2)	5(34.8)	4(38.1)	4(45.0)	4(42.2)	4(44.1)	4(43.8)
60-64						4(38.5)	4(36.7)	4(36.9)	4(37.7)
65-69	8(25.8)	8(30.7)	8(35.4)	6(48.5)	6(51.5)	4)	4)	4)	4)
70-74						4)	4)	4)	4)
75-79						4)	4)	4)	4)
80-84	3)	3)	10(69.4)	8(83.1)	8(93.7)	4)	4)	4)	4)
85+						4)	4)	4)	4)

주: 1) 한국은 10세 간격으로 자료가 제공되어 있음

2) 일본은 5세 간격으로 자료가 제공되어 있음

3) 이 연령층에서 자살은 사망 순위 10순위 이상임

4) 일본의 자료는 사인을 제5순위까지만 제공하고 있음

자료: 한국은 매년도 〈사망원인통계〉; 일본은 〈인구통계자료집〉 2001/2002, 2003, 2004, 2005.

자살률의 측면에서는 고령층의 자살률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젊은 층의 자살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었다. 그러나 자살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 가운데 차지하는 순서는 고령층의 경우 젊은층보다 높지 않다. 70대 이상의 연령층의 경우 자살 아닌,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많기 때문에 자살이 사망순위에서 차지하는 순서는 높지 못하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자살이 사인 가운데 차지하는 순서는 2002년에 10위, 2003년에 8위, 2004년에 8위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이 사인 순위 가운데 1위 혹은 2위를 차지하는 연령층이 늘어나면서 자살에 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한창 공부하는 청소년들이나 젊은 경제활동인구 연령층에서 자살이 사인 가운데 차지하는 순위가 높아지면서 자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일본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경우 2000년에도 이미 자살이 사망원인 가운데 1

위를 기록하고 있다. 2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의 경우 2000년과 2001년에는 자살이 사인 제2순위였지만 2002년부터는 이 연령층에서도 자살이 사인 제1순위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에서 한창 젊게 활동해야 할 40대에서 자살이 사망원인의 제3순위로 자리를 잡고,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최근에서야 나오고 있는데 반해, 이웃 일본에서는 40대의 경우 2000년 이래 지금까지 자살은 사망원인의 제2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50대나 60대 초반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해당 연령층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연령별 사인순위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순위가 훨씬 높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자료는 연령별 사인순위를 5순위까지만 보여주고 있어 60대 후반이나 그 이후의 고령층에서 자살이 사인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단순히 자살률이 높은 것만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별 사인으로 자살이 중요한 사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 젊은 연령층에서만 아니라 나이 든 연령층에서도 자살이 중요한 사인이 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이미 연령별 사인 가운데 자살이 중요한 사인으로 등장해 있고, 한국도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연령별로 자살이 사인의 순위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모든 연령에서 자살이 중요한 사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자체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자살은 각 연령별 사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다음 <표 6>은 2004년에 성별 및 연령별로 전체 사망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남성의 경우를 살펴보자. 연령별로 전체 사망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연령층은 20대, 30대, 10대, 40대의 순으로 나타난다. 20대의 경우 전체 사망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5%이다. 즉 2004년에 사망한 20대 남성의 경우 4명 중 한 명이 자살로 죽은 것이다. 병이 아닌 자살로 4명 중 한 명이 죽고 있는 것이다.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5명 중 한 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20대 남성보다는 적지만 30대 남성의 경우에도 자살로 사망한 비율이 매우 높다. 대부분이 학생일 10대 남성의 경우에는 전체 사망 원인 중 14.4%를 자살이 차지하고 있다. 10대 남성의 경우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나 기타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이다. 그 다음이 악성신생물이고 그 다음을 자살이 차지하고 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현저히 줄어든다. 60대 남성의 경우 자살이 전체 사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4.3%, 70대 남성의 경우 2.6%,

80대 남성의 경우 1.6%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체 남성의 사망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이다.

〈표 6〉 성별, 연령별 자살이 전체 사망 중 차지하는 비율: 2004

남자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전체
악성신생물	15.1	10.1	15.5	24.1	35.9	41.0	35.1	19.2	30.6
당뇨병	0.3	0.5	1.7	3.2	4.6	5.8	5.2	3.1	4.3
고혈압성질환	0.0	0.2	0.2	0.4	0.9	1.2	1.6	2.2	1.2
심장질환	2.1	5.1	6.7	7.0	7.3	7.1	7.3	6.9	6.9
뇌혈관질환	2.1	1.5	4.7	7.0	8.7	12.6	16.5	14.7	11.9
간질환	0.0	0.6	7.7	14.7	11.1	5.2	2.1	1.0	5.5
운수사고	27.4	26.8	14.2	7.7	4.7	3.6	1.9	1.0	4.5
자살	14.4	25.2	20.8	11.8	7.2	4.3	2.6	1.6	6.2
기타	38.7	30.0	28.6	24.3	19.6	19.3	27.7	50.4	28.8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전체
악성신생물	19.9	16.9	33.9	42.6	44.9	36.8	24.2	9.6	21.7
당뇨병	0.6	0.9	1.9	2.4	5.0	8.8	8.4	3.4	5.4
고혈압성질환	0.0	0.3	0.5	0.8	1.3	2.3	3.6	3.8	3.1
심장질환	4.3	3.6	3.7	4.7	5.6	7.6	9.4	8.0	7.7
뇌혈관질환	1.9	2.7	4.1	8.5	11.9	18.3	22.5	15.0	16.3
간질환	0.0	0.9	3.4	4.9	3.9	2.8	1.4	0.6	1.6
운수사고	13.7	12.1	6.2	5.8	3.8	2.7	1.6	0.5	2.0
자살	19.9	32.0	22.2	11.5	6.3	3.1	2.0	0.9	3.5
기타	39.8	30.8	24.1	18.9	17.2	17.7	26.9	58.2	38.7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여성의 경우에도 자살이 전체 사망원인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연령층은 20대, 30대, 10대의 순으로 나타난다. 20대 여성의 2004년 사망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이 3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망 중 거의 3명 중 한 명 꼴로 자살로 인한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이다.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사망 중 자살이 22.2%를 차지하고 있다. 4명 중 1명 이상의 비율로 여성 30대는 자살로 죽고 있다. 10대 여성들도 자살로 인한 사망의 비율이 높다. 19.9%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사망이다. 사망자 5명 중 한 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의 경우 운수사고 등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는 반면에 10대 여성들이 운수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은 13.7%이고, 19.9%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다. 10대 여성들에게 자살은 악성신생물로 인한 사망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인의 제1순위이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로 인한 사망은 크게 줄어든다. 60대 여성의 경우 자살은 전체 사망의 3%이고, 70대 여성의 경우에는 2%, 80대 여성의 경우에는 0.9%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적인 수준의 분석을 통해 사인의 순위에서 자살이 높은 사인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살이 성별, 연령별 사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의 검토를 통해 20대, 30대, 10대의 남성이나 여성의 경우 자살이 사망의 중요 원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사망자 세 명중 한 명꼴일 정도로 자살로 인한 사망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10대 남성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운수사고의 비율이 높지만, 10대 여성의 경우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 중 다섯 명에 한 명꼴일 정도로 높고, 사망원인으로도 제1순위에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살에 관해 때로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때로는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 자살률, 사망순위,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해 자살이 점점 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임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 절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서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경제적 양극화 혹은 경제상황과 자살과의 관계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대로 송태정 등(2005)의 연구에서도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자살, 이혼, 범죄와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자살을 다루었기 때문에 자살의 수의 증가를 자살률의 증가라고 하고 이 변수와 다른 경제변수와의 관계만을 분석하였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살에는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많다. 비록 전체 자살률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이라 할지라도 자살률에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살률과 경제적 현상 사이의 관계만을 조망하는 것은 자살과 경제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자살률을 연령별 자살률로도 검토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 자살률과 경제와의 관계도 검토해본다.

이 절에서의 관심의 하나는 지난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경제적인 상황과 자살과의 관계에도 있지만, 더 큰 관심은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인 상황과 자살과의 사이의 더 뚜렷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경제적인 상황과 자살과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경제위기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자살의 이면에는 열악해진 경제상황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이를 가설의 형태로 표현한다면 “경제위기 이전에는 자살과 경제상황과 관계가 없다”와 “경제위기 이후에는 자살과 경제상황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또 하나의 관심은 경제상황과 자살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해도 어떤 경제적 상황이 자살과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자살의 증가와 관계가 있는가. 전체적인 실업률의 증가가 자살의 증가와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최근 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가계부실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이 자살의 증가와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소위 경제적 양극화라고 불리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증가가 자살의 증가와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자살의 관계를 볼 때도 경제적 상황을 좀더 세밀히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 경제적 상황과 자살과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다음 <표 7>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경제적 지표와 자살률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7〉 경제적 지표와 자살률과의 상관관계: 1990-2004

	자살률	고령 자살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실업률	0.55 **	0.40	0.26	0.55 **	0.64 **	0.64 **	0.56 **	0.49 *	0.37	0.30
경제 성장률	-0.55 **	-0.38	-0.42	-0.73 ***	-0.64 **	-0.60 **	-0.54 **	-0.45 *	-0.34	-0.29
소득5분위	0.92 ***	0.91 ***	-0.05	0.57 **	0.85 ***	0.90 ***	0.92 ***	0.94 ***	0.89 ***	0.87 ***
소득10분위	0.90 ***	0.89 ***	-0.01	0.59 **	0.83 ***	0.89 ***	0.90 ***	0.92 ***	0.87 ***	0.84 ***
지니 계수	0.68 ***	0.64 ***	-0.07	0.39	0.67 ***	0.70 ***	0.70 ***	0.68 ***	0.62 **	0.59 **
가계부실지수	0.72 ***	0.71 ***	-0.17	0.38	0.66 ***	0.71 ***	0.72 ***	0.75 ***	0.67 ***	0.67 ***

주: *** <0.01, **<0.05, *<0.1

- 1) 가계부실지수는 대신경제연구소의 민병수 연구위원이 제공해 주었다.
- 2) 소득5분위는 (상위20%소득)/(하위20%소득)
- 3) 소득10분위는 (상위10%소득)/(하위10%소득)
- 4) 고령 자살률은 60세 이상 자살수/60세 이상 인구*100,000 으로 계산했다.
- 5) 자살률은 5세 이상 인구수를 분모로 계산했다.
- 6) 지니계수는 안동대 경제학과 임병인 교수의 계산 결과이다.

위의 표에서 소득5분위, 소득10분위, 지니계수는 모두 동일한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에 관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소득분배 지표를 이용하는 이유는 경제적 상황과 자살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중요한 관심이기 때문에 경제적 양극화를 나타내주는 여러 지표를 통해 자살과의 관계를 보기 위함이다.

위의 표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실업률, 경제성장률, 소득분배, 가계부실지수 등 모든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표와 자살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과 자살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0.55,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0.5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아주 강한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실업률과 자살은 정의 상관관계, 경제성장률과 자살 사이에는 부의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분배와 자살과의 관계는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5분위나 소득10분위 모두 상관관계 계수가 0.9이다.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소득분배가 더 불균등해지는 방향으로 자살도 높아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최근 들어 가계부실이 우려되고 있는데, 가계부실지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자살도 높아지는 관계가 있음이 드

러난다.

고령 자살은 전체 자살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먼저 1990년부터 2004년 사이에 고령자살과 실업률, 경제성장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즉,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고령 자살도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 경제성장률이 낮아질수록 고령 자살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지는 것과 고령 자살이 높아지는 것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가 부실해지는 것과 자살이 높아지는 것도 역시 강하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살률이 연령별로 다르고, 자살이 원인도 모든 연령층에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살률을 각 연령별 자살률로 나눈 후 경제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10대의 자살은 경제적인 이유와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대부터는 경제적인 변수와 자살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20대부터 50대까지의 자살률은 경제변수들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과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과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또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과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사이에도 역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10세 간격으로 나누어 경제와 자살 사이의 관계가 다른 연령층과 다르다. 실업률과 경제성장 그리고 자살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있어도 유의도 0.1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와 자살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고령층에서도 가계부실지수와 자살률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표 7>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199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자살률은 경제적인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령 자살의 경우에는 소득분배와 관련된 변수 및 가계부실지수와 고령 자살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다. 또한 10대의 자살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경제지표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10대의 자살은 비경제적인 원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5년을 통틀어 경제변수와 자살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상정한 대로 한국 사회의 점증하고 있는 자살은 1997년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우리는 경제

변수와 자살과의 관계를 시기를 둘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한 편으로 1990년부터 1997년까지 8년간 경제상황과 자살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다른 한 편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7년간 경제상황과 자살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분석 시기를 둘로 나누어 보는데 각각 8년과 7년 동안의 경제지표와 자살과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 쪽으로 너무 많은 시기가 물리거나 적은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표 8>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실업률, 경제성장률, 소득분배, 가계부실지수 및 자살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8>을 통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경제적인 상황과 자살률 혹은 고령 자살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었다. 그러나 위의 <표 8>을 통해 외환위기 이전에 경제적 상황과 자살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가계부실지수와 자살률 사이에 0.1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경우 가계가 부실해지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과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배치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경제적 지표와 자살률과의 상관관계: 1990-1997

	자살률	고령 자살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
실업률	-0.22	-0.17	-0.43	-0.30	-0.09	-0.14	-0.15	-0.18	-0.14	-0.18
경제 성장률	-0.51	-0.49	-0.37	-0.38	-0.59	-0.55	-0.50	-0.47	-0.54	-0.34
소득5 분위	0.41	0.31	0.56	0.51	0.29	0.29	0.20	0.31	0.24	0.56
소득10분위	-0.07	-0.18	0.13	0.04	-0.17	-0.17	-0.26	-0.17	-0.22	0.08
지니 계수	-0.05	-0.14	0.26	0.09	-0.17	-0.17	-0.23	-0.10	-0.25	0.16
가계부실지수	-0.70 *	-0.69 *	-0.58	-0.62 *	-0.65 *	-0.71 *	-0.70 *	-0.65 *	-0.78 **	-0.47

주: *** <0.01, **<0.05, *<0.1

다른 경제지표와 자살과의 사이에는 전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 자살률로 보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자살률로 보아도 경제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10대별로 나누어 연령별 자살률과 경제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아도 역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위의 <표 8>에 나타난 결과는 상당히 놀랍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을 통틀어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는 경제지표와 자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1990년부터 1997년까지로 기간을 한정해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는 15년 사이에 경제지표와 자살과의 상관관계는 거의 대부분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상관관계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다음 <표 9>는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7년 동안 경제지표와 자살률과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경제적 지표와 자살률과의 상관관계: 1998-2004

	자살률	고령 자살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
실업률	-0.24	-0.59	0.88 ***	0.49	0.09	0.02	-0.29	-0.45	-0.66	-0.72 *
경제 성장률	-0.41	-0.06	-0.63	-0.80 **	-0.61	-0.53	-0.39	-0.20	0.03	0.05
소득5분위	0.82 **	0.82 **	0.05	0.39	0.61	0.77 **	0.83 **	0.88 ***	0.78 **	0.72 *
소득10분위	0.84 **	0.76 **	0.24	0.54	0.70 *	0.84 **	0.84 **	0.85 **	0.71 *	0.63
지니 계수	-0.85 **	-0.89 ***	0.15	-0.37	-0.72 *	-0.73 *	-0.84 **	-0.88 ***	-0.88 ***	-0.90 ***
가계부실지수	-0.55	0.40	0.44	0.53	0.53	0.58	0.51	0.53	0.32	0.24

주: *** <0.01, **<0.05, *<0.1

<표 9>을 보면 자살률과 실업률, 경제성장률, 가계부실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즉 외환위기 이후에도 전체적인 자살률과 실업률, 경제성장률, 가계부실지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도 없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소득분배에 관한 지표들과 자살과의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소득5분위와 자살률 사이의 상관관계 계수는 0.82, 소득10분위와 자살률 사이에는 0.84, 그리고 지니계수와 자살률 사이의 상관관계 계수는 -0.85이고 모두 통계적으로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즉 소득

분배의 어떤 지표를 사용해도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높아지는 것과 자살이 높아지는 것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에 자살률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이면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실업률의 상승이나 경제성장률의 하락 혹은 가계부실의 정도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 내에서 소득분배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정도인 것이다.

전체 자살률뿐만 아니라 고령 자살률도 전체 자살률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처럼 상승하는 고령 자살률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은 집합적인 수준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이다. 소득5분위와 고령 자살률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0.82, 소득10분위와 고령 자살률 사이의 상관관계 계수는 0.76 그리고 지니계수와 고령 자살률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0.89 등 매우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반면에 실업률, 경제성장률, 가계부실지수 등은 고령 자살률과 상관관계 계수도 작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다.

자살률과 경제요인과의 관계를 연령별로 나누어서 보면 10대의 자살률은 실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대의 경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과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20대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과 자살률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대와 20대의 경우 소득분배의 지표들과 자살률 사이에는 아무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안 나타난다. 10대와 20대의 자살률과 실업률 혹은 경제성장률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기는 힘들다. 단지 10대의 자살률과 20대의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의 자살률과 그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0대부터는 전체 자살률의 양상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30대의 자살률부터는 실업률이나 경제성장률 혹은 가계부실지수 등과 자살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 대신 소득분배의 지표인 소득5분위, 소득10분위 혹은 지니계수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30대 자살률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도 0.1 수준에서 소득10분위와 지니계수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도 강한 상관관계가 관찰되고 있다. 40대의 경우에는 30대보다 상관관계 계수가 더 높아지면서 역시 소득분배 지표와 자살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50대, 60대로 옮겨갈수록 소득분배 지표와 자살률 사이의 상관관계 계수는 더 커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70대와 80대의 자살률은 60대의 자살률보다는 소득분배 지표와 상관관계 계수가 조금씩 작아진다. 그러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상관관계도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과 고령층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사이에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80대의 경우에는 지니계수와 자살률 사이에 대단히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통해 우리는 전체 자살률, 고령 자살률, 각 연령별 자살률과 여러 경제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살률은 소득분배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도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상관관계 계수만을 가지고 자살 및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보건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자살률의 상승은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실업률이 높아져 직업을 찾지 못해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말하기 힘들다.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도 말하기 힘들다. 또 각 가구마다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등 가계부실이 깊어져 자살이 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위의 상관관계 분석에 의존한다면 경제위기 이후에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상위층에 부가 집중하고, 하위층의 부는 정제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 소득의 분배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 자살률의 상승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V. 결론

한국 사회의 자살률은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던 자살률은 최근 수년 동안 급증하면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자살률은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는데, 한국의 자살률은 일본과 가까워짐으로써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자살률 자체도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인순위에서도 자살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청장년 연령층에서 자살이 사망원인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에서도 점차 중요한 사인이 되고 있다.

자살이 전체 사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다. 2004년의 자료를 분석

해보면 20대 여성들의 사망 가운데 30% 이상이 자살로 인한 사망이었다. 즉 20대 여성의 사망자 3명 중 한 명은 자살로 인한 사망이었다. 동일한 연령대 남성의 경우 교통사고 등 운수사고가 제일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4명 중 한 명이 자살로 인해 사망할 정도로 젊은 층에서 자살은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사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낮아진다. 그러나 고령층에서 자살률의 상승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경이로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60, 70, 80대 고령층에서 경제위기 이후 특히 2002년을 기점으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고,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사회는 아직 노인들이 고령의 삶을 걱정 없이 안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고령화의 급진전은 우리 사회에 큰 도전을 던지고 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사회적 준비가 아직 미비한 상황 속에서 고령층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경제위기 이후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찾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 실마리는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적 상황,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은 경제적 상황, 특히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이제는 거의 일상생활의 용어같이 되어버린 경제적 양극화 등이 자살의 증가로 표현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경제성장이 낮아졌지만, 한국 사회가 음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이 높아졌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외국과 비교해서는 높지 않다. 물론 구직을 하다 더 이상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등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로서는 실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 청년층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실업의 증감이 자살의 증가와 갖는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 마찬가지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가계가 부실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 역시 자살과의 관계는 깊지 않다. 반면에 1997년 이전에는 자살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던 소득분배지표와 자살과의 관계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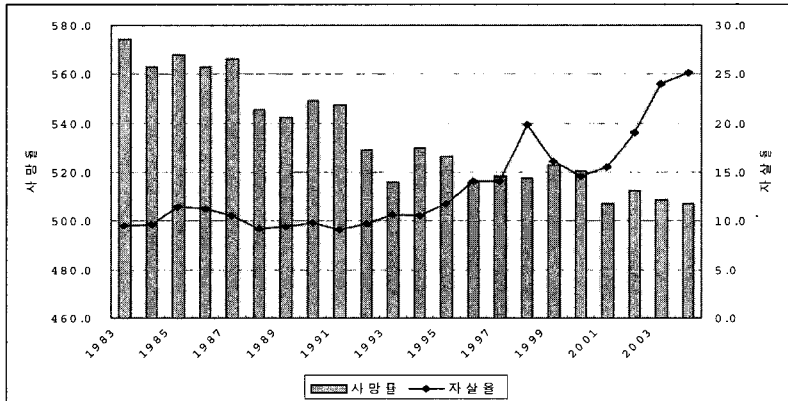
부익부 빈익빈 이란 용어로 칭할 수 있는 소득분배의 왜곡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어 있는 “경제적 양극화”의 핵심적인 한 현상이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는 계속 왜곡되고 있다. 중산층이 붕괴하고 상류층에 부가 집중되는 한편, 붕괴된 중산층의 주로 하층으로 이동하고, 하층에서 상승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전형적인 “경제적 양극화”가 지난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다. 자살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한대로 개인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사회적인 현상이다. 한국사회에서 경제위기 이후 자살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고령층에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에 적합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소득분배에 관한 지표와 자살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상관관계 계수가 매우 높은, 둘 사이에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바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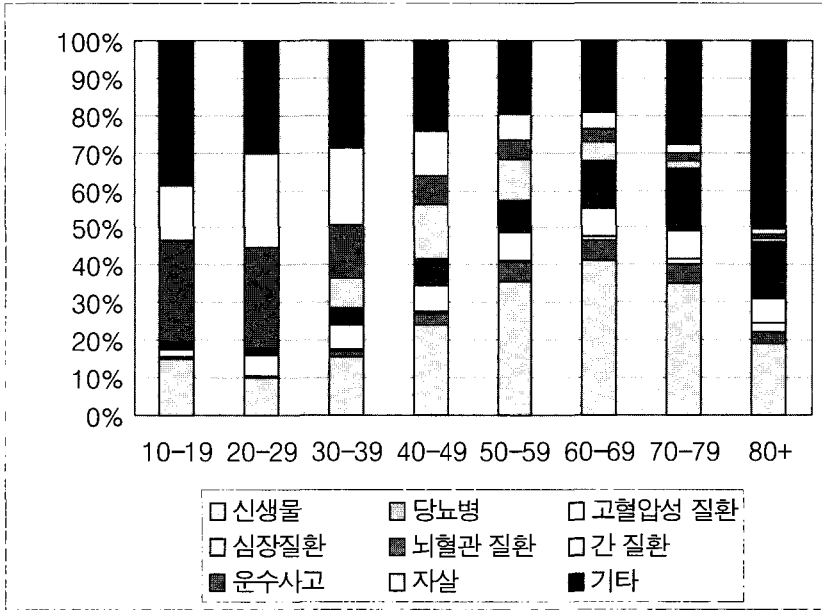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사회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소득분배의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연구에서 다룬 자살의 증가 현상 자체가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심화된 양극화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 마치 뒤르켐이 사회통합이 무너질 때 자살의 증가를 논했던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자살은 현재 우리사회에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사회통합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높여주고 있다.

〈부표 1〉 전체 자살률과 고령자 자살률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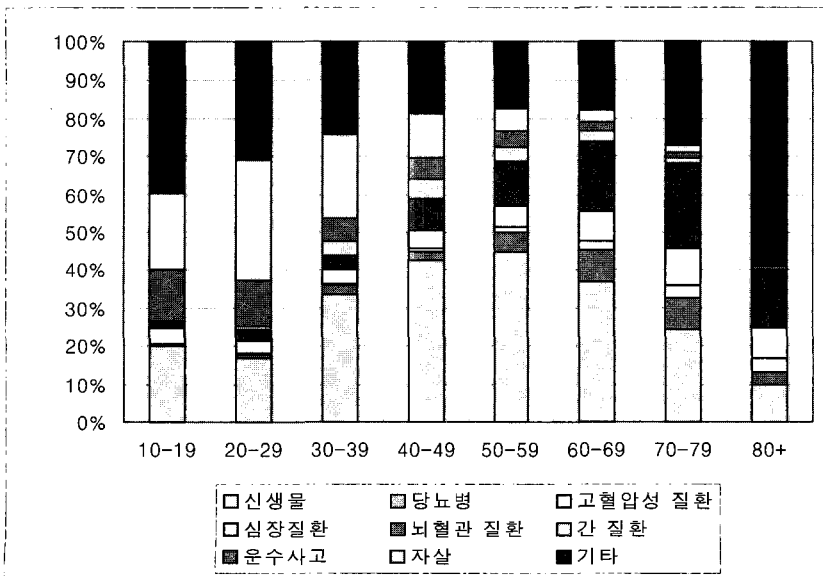
연도	자살률	고령자 자살률
1983	9.5	14.2
1984	9.6	16.9
1985	11.5	19.7
1986	11.2	18.8
1987	10.5	18.4
1988	9.2	15.6
1989	9.4	16.3
1990	9.8	16.3
1991	9.1	15.3
1992	9.7	16.0
1993	10.6	19.2
1994	10.5	19.6
1995	11.8	21.5
1996	14.1	25.8
1997	14.1	26.7
1998	19.9	37.5
1999	16.1	33.6
2000	14.6	32.1
2001	15.5	37.6
2002	19.1	48.5
2003	24.0	62.0
2004	25.2	68.2



〈부록 그림 1〉 사망률과 자살률의 변화: 1983-2004



<부록 그림 2> 남성의 사망원인 구성: 2004



<부록 그림3 > 여성의 사망원인 구조: 2004

참고문헌

- 김승용(2004), “한국 노인 자살률 변동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8), 181-205.
- 김형수(2000), “노인과 자살” <<노인복지연구>> 겨울호. 25-45.
- 뒤르켐, 에밀(1994), <<자살론: 사회학적 연구>> 서울: 청아.
- 박경애(1996), “성과 자살” <<가족과 문화>> 창간호, 149-172.
- 박종순, 이준영, 김순덕(2003)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36(1), 85-91.
- 박종순, 김순덕, 지선미, 이제숙(2003), “우리나라 자살률의 추세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역학회지>> 25(2), 84-91.
- 송태정, 배민근, 김기범(2005),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연구보고서. LG 경제연구원.
- 통계청. 각 년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통계청. 2005. “2004년 사망원인통계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 KOSIS. 통계청
- 日本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각 년도. 人口統計資料集 (Latest Demographic Statistics). 日本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 Eun, Ki-Soo(2003), “Understanding Recent Fertility Decline i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1: 574-595 (Supplement to Volume 1). Tokyo, Japan: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 Giddens, Anthony(1965), “The Suicide Problem in French Sociolog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16(1): 3-18.
- Girard, Chris(1993), “Age, Gender, and Suicide: A Cross-National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553-574.
- Nordstrom, Thor(1995), “The Impact of Alcohol, Divorce, and Unemployment on Suicide: A Multilevel Analysis” Social Forces 74(1): 293-314.

- Pampel, Fred C.(1998), "National Context, Social Change, and Sex Differences in Suicide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744-758
- Simpson, Miles E., and George H. Conklin(1989), "Socioeconomic Development, Suicide and Religion: A Test of Durkheim's Theory of Religion and Suicide," *Social Forces*, 67(4): 945-964.
- Stack, Steven(1992), "The Effect of Divorce on Suicide in Finland: A Time Series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 636-642.
- Stack, Steven and Ira Wasserman (1993), "Marital Status, Alcohol Consumption, and Suicide: An Analysis of National Dat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1018-1024.
- Trovato, Frank(1987), "A Longitudinal Analysis of Divorce and Suicide in Canad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193-203